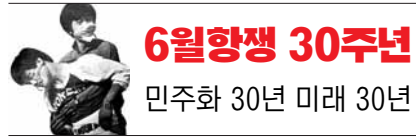


# 민주주의 수호 '불굴의 저항' 광주정신 전국으로 번지다



**6월항쟁 30주년**  
민주화 30년 미래 30년

〈중〉 다시 만난 6월의 사람들

1987년 6월 광주는 열정이 넘쳤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넘쳐났다. 4·13 호헌조치에 광주사제단은 목숨 건 '단식'으로 맞섰다. 전국 최초의 집단항거였다. 또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국본'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발족했다. 기말고사에 묶여 주춤했던 대학생들을 깨운 이는 '여학생의 삭발투쟁'이었다. 고교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으며 가열했다. 30년이 흐른 2017년 6월 그들을 다시 만났다.

## 4·13 호헌 철폐 첫 단식 광주사제단

4·13 호헌 조치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항거는 광주의 천주교 신부들로부터 비롯됐다. 광주대학교 소속 신부 60여명은 4월17일 임동성당에서 윤공희 대주교 집전으로 '성유축성미사'를 올린 뒤 "4·13특거로 국권을 기만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열망을 배신한 현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십자가를 지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4월21일 남재희(광주정의평화위원장) 신부 등 사제 12명은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 기도를 드리면서'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남로 카톨릭센터 6층 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신부 12명 무기한 단식...동조단식·지지성명 봇물

물로 입술만 적시는 목숨을 건 처절한 단식이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동조 단식·농성·지지 성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천주교 신부들에 이어 기독교 목사·장로들도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종교인들의 목숨 건 단식은 관망하던 지식인들을 일깨웠고, 시민들을 항쟁으로 인도했다. 당시 천주교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 간사였던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6월항쟁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의 힘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역사적 항쟁이었다"며 "최근 공개된 미국 CIA문건을 보면 6월항쟁을 계기로 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헌 철폐, 대통령 직선을 외쳤던 시위군중에, 베타이부대가 가세하면서 6·29선언을 끌어냈다. 시민사회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가져왔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 탄생을 막지 못한 것은 그 한계로 평가됐다"고 6월항쟁을 평가한 뒤 "그러나 지난 겨울



촛불행영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이틀 극복했다"고 진단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이웃 상습 폭행 50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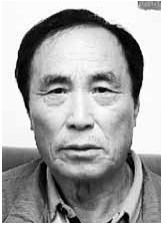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수많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김씨는 2010~2014년 2건의 상습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장성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같은해 10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들어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넓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국본 첫 발족 최성호 가능전남회장

1987년 5월18일, 광주시민들은 하나 둘 망월동 5·18묘역으로 모였다. 5·18광주민주항쟁 제7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5월 투쟁본부가 주도한 이날 추모제가 '5·18 결의문 낭독' 순서에 이르지 갑자기 주위가 분주해졌다. 무대에 간이 단상이 마련되고, 예정에 없던 '민주헌법쟁취 범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이 낭독됐다. 다부진 체격의 최성호 가능전남회장은 "4·13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고문과 폭력, 구급이 버젓



## 5·18 추모제서 국본 발족...전국 조직으로 발전

이 자행되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1980년 5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의 '민주화 및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기도회'를 적극 지지하고, 문인·예술인·교수님들의 양심적 선언과 학생들의 실천적 투쟁에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광주민주항쟁 7주년을 맞아 '4·13 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쟁취 범민운동본부'를 발족합니다."

일에서도 잇따라 국본이 발족했다. 그리고 27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본'이 결성되면서 전국 조직이 됐다. 발족문을 낭독한 최성호(73·광의면특목사업단 우리 밀기공공장 대표)씨는 "당시는 감시가 엄한 시대였다. 선언문 낭독 도중 체포될 수도 있었다. 주위에 가능회원 15명을 배치한 뒤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종교와 정파,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어 민주화에 대한 열망만으로 국본이 꾸러졌다"며 상생과 협력력을 강조했다. 최씨는 서른의 젊은 나이에 농민운동에 뛰어들어



가능전남도회장, 어민회 조직, 수세 폐지 운동, 밀살리기 운동을 하며 질순을 훌쩍 넘긴 지금도 농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여학생 첫 삭발 박춘애 총여학생회장

전국이 들끓던 6월10일, 전남대에선 용봉대동체가 열리고 있었다. 축제가 끝나면 기말고사였다. 당연히 호헌철폐 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에 총학생회 간부들은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반전시킬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삭발투쟁'이었다. 16일 오후 2차 비상총회 때 삭발이 결정됐다. 200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김승남 총학생회장은 "4·13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결연한 투쟁의지를 다지기 위해 삭발을 하겠다"고 외쳤다. 이어 총여학생회장 박춘애도 삭발



## 전남대생 삭발·혈서투쟁...“6월항쟁은 5·18 연장선”

투쟁을 천명했다. 옥색 저고리와 검은색 통치마 위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졌다. 엄숙해졌다.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6월 항쟁 최초의 여학생 삭발투쟁으로 기록됐다. 삭발이 끝나자 20~30명의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갑자기 웃음을 베풀더니 손가락을 깨물어 '민족민주만세 독재타도', '이한열을 살려내라'라고 혈서를 쓰기 시작했다. 전남대생들의 '6·16 삭발·혈서 투쟁'은 소강상태의 광주 상황을 일거에 투쟁국면으로 반전시켰다. 학생대중의 동참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전국에서 가장 가

열차게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이날 이후 시내 시위는 학생들이 주도했다. 삭발투쟁의 주인공 박춘애(50·진남중 교사)씨는 "당초 학생회장과 투쟁위원장 2명이 삭발하기로 했는데 내가 우겼다. '남자만 들어서 삭발하면 무슨 반전이 있겠느냐'며, 삭발은 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반을 있었나'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정말 반전이였다. 여학생의 긴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분위기는 엄숙해졌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 20여명이 동조 삭발에 참여했고, 수십명이 혈서로 투쟁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교문으로 몰려갔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6월항쟁은 5·18의 연장선에 서있고, 촛불행영으로 이어졌다. 잘못된 나라를 되돌리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마음이 6월정신이고, 이것은 촛불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교생 조직적 참가 김대현 광고협 의장

6월26일 국민평화대행진. 서현교회 주변에 옛된 고교생들이 시위대의 전면에 서서 투쟁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생' 깃발 아래 모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초기엔 조직적이지 않았다.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그 현장에서 또래의 학생들이 매일 마주치게 됐다. 서로 낮이 익자 자연



## 교문 박차고 거리로...보충수업 철폐 등 쟁취 성과

스럽게 '함께 모여 싸우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때부터였다. 집회가 있는 곳이면 여김없이 '고등학교생' 깃발이 휘날렸고, 그 아래 고등학교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시·도교육위원회의 학교시간 조정, 학교측의 시위 참가 방해에도 오후 3시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생 민민주'라는 이름으로 시위에 참가한 학교는 광주

상고, 광주기계공고, 송신공고, 광주고, 대동고, 석산고, 진흥고, 동신여고, 중앙여고 등 19개교 학생들이었다. 당시 시위에 참가한 김대현(47·위민연구원장)씨는 "처음엔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다보니 통성명을 하게 됐고, 또래는 쉽게 의기투합했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피끓는 청년이었

기에 맨 앞에서 거침없이 싸웠다"고 설명했다. 6월항쟁에 참여했던 고교생들은 보충수업 철폐·학생회장 직선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일궜다. 또 전교조의 탄생과 쉼을 같이하며 '광주지역고등학교대표자협의회'(광고협)를 조직해 참교육 투쟁에 동참했다. 김씨는 "6월항쟁과 촛불행영은 '적폐 청산'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같다"며 "이제 지역의 적폐도 청산해야 할 때다. 젊은 청년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약물 복용 빅뱅 탐 중환자실로

○의무경찰 북부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입원.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 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최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오전 11시 30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평소 예민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한 것으로 보이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최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상무지구 상가 매매

10층 중 6층 (19평)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300만

010-6834-4600

### 북구 중흥동 모아A.P.T

전대 정문 2분 .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 내부갈끔 )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010-6832-9700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 68평, 건 87평 (실평수), 월세 100만원  
▶ 감정가 2억4,600만 → 최저가 1억3천7백
- 동구 산수동 (다가구 원룸동)  
토 83평, 건물 145평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 감정가 5억2천 → 3억6천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7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9평, 월세 120 이상  
▶ 2억6천 → 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이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익) ※

-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풍암동 풍암3차 대주아파트 (분양면적 35평)  
**감정가 2억2,300만** → 최저가 1억5,600만
- 북구 윤암동 석산블루밍메가시티 (분양면적 49평)  
**감정가 3억5천만** → 최저가 2억4,500만
- 광산구 수원동 우미린아파트 (분양면적 33평)  
**감정가 3억3천** → 최저가 2억3천2백

010-7384-7800      010-6670-9800